글러브 가로등·김응용 승강장·핸드 프린팅…타이거즈의 역사·문화 입힌다

임동 일대 새 닉네임 '야구 마을'

광주시·북구·주민들 손잡고 11월까지 조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해 대표 브랜드 만들기로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 형상의 가로등, 김응용 감독의 이름을 딴 버스 승강장, 야구 선수들의 핸드프린팅….

광주시와 북구, 임동 주민들이 손잡고 야구 명문 해태와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북구 임동 일대를 야구마을로 조성한다. 북구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워 연차별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야구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4일 광주시 북구와 임동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임동자치위)에 따르면 임동 야구마을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 7800여만원을 들여 이달 중 '임동 야구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1월까지 4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북구와 임동자치위는 야구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마을을 조성해 관광·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동 야구마을을 광주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북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10년 장기 밑그림을 세우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임동자치위와 협의해 특색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거리 조성사업에서는 야구 이미지를 형상화한 버스 승강장, 전시부스, KIA 타이거즈 출신 야구스타 간판과 핸드프린팅, 야구 콘셉트의 보도블록, 야구 체험관 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에 있는 야구 명문 광주서림초의 역사와 출신 선수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 고민 중이다. 쌍방울의 전설이었던 김기태 KIA타이거즈 감독, 해태와 KIA 출신의 이종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이순철 SBS스포츠 해설위원, 이강철 넥센히어로즈 수석코치, 이대진 KIA 타이거즈 투수코치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광주서림초 출신이다.

야구마을 추진은 임동 주민들의 제안이 발단이 됐다. 주민자치위의 야구 거리 조성 사업이 지난해 광주시 시민참여예산공모에 선정, 지난달 5억원의 교부금을 받으면서부터다.

북구와 임동자치위는 지난달 회의를 하고, 2012~2013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조성한 '야구의 거리'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야구마을을 조성하기로 협의했다. 당시 북구와 임동자치위는 3억5000여만원을 들여 조형물과 벽화 등을 조성했지만 지속성이 떨어져 지역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규재(57) 임동주민자치위원장은 "방직산업의 축소로 인구가 감소하고, 공·폐가의 증가로 낙후된 임동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1회성 사업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기적으로 주민 손으로 광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월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

5·18 36주년 행사 슬로건 확정

제36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4일 '오월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올해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시민 공모로 채택된 슬로건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이에 맞서 5월을 더욱 똑똑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80년 5월의 눈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삶과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와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 가자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행사위는 덧붙였다.

올해 기념행사의 슬로건과 방향을 확정한 행사위는 6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출범식은 김영정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정구선 상임행사위원장의 인사말,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과 조성아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의 출범선언문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위는 5월 3단체와 광주지역 여성·예술·교육·노동·농민·학생·통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11개단체, 광주시·5개 기관 대표로 구성됐으며, 5월을 전후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승객 96명 탄 여객선 운항 중 고장 회항

여수~거문도 대체선박 조국호
뱃길 끊겨 주민 불편 가중 우려

여수에서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 '조국호'가 운항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회항했다.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유일한 선박이 멈춰서면서 섬 주민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승객 96명을 싣고 여수항을 출발해 거문도로 향하던 조국호(396t)가 손죽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고흥 나로도항으로 회항, 수리 중이다.

이 배는 기존에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항하던 줄리아아쿠아호가 검사에 들어감에 따라 대체 선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하루 2차례씩 거문도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나로도항에서 수리가 늦어지게 되면 거문도 항로에 투입할 다른 배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뱃길이 끊겨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선사 측은 오늘(4일) 밤 안으로 고쳐서 내일 오전부터 정상 운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리 완료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일본 뇌염모기 방역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4일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모기' 서식지로 추정되는 북구 용봉천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작은 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현배기자 choi@

잇단 살인 사건에 시민들 '불안' 검찰,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광주·전남 올들어 8건 발생

목포에서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올들어 광주·전남에서만 8번째다. 특히 지난 2월23일 화순 여자친구 살해 사건 이후 한 달 새 5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은 구속수사와 최고형 구형 등 엄정대처를 천명했다.

4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살인사건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30~60%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8건의 살인사건(상해·폭행치사 포함)이 잇따라 발생했다.

강진 노점상 살인사건(1월15일)을 시작으로 모텔 여자친구 살인(1월18일)이 일어났다. 2월 들어서는 화순 여자친구 살인(2월24일), 여인숙 여주인 강도살인(2월26일), 아파트 상해치사 사건(2월27일) 등 5일새 3건이 발생했다.

3월에도 PC방 업주 살인(3월9일), 주차장 살인 사건(3월23일)이 잇따라 터졌다.

짧은 기간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전남 경찰청과 강력사건 수사 대응력 강화 회의를 열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강력전담팀 수사체제를 확립했다.

검찰은 강력당직검사제를 도입해 24시간 신속·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고 주요 사건에는 강력전담 검사가 현장에 출동, 변사체를 직접 검시하고 검·경 간 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죄질이 불량한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최고형 구형과 적극적인 상소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중인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데 이는 사소한 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 슈퍼마켓 2인조 강도살인범 검거

조선족 등 구속영장 신청

휴일 대낮에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아내를 숨지게 한 2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4일 슈퍼마켓에서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38)씨와 중국 조선족 전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3시15분에서 3시55분께 사이 목포시 산정동 A(73)·B(여·68)씨 부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를 살해하고, 남편 A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담배 2보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슈퍼마켓에 딸린 방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부부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강도 등 수십차례의 전과가 있는 이씨와 2006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지난 2007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낸 전씨는 두 달 전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돈도 없고 사는 게 재미 없다. 한 건 하자'라고 전씨에게 제안하면서 범행을 모의했고, 범행 전 사전답사까지 했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맘에 둔 여성과 잘 안되자 골탕먹이려 집 턴 철없는 30대

쌍나팔

○…평소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의 연애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골탕먹이기 위해 집을 턴 30대 남성과 이를 도운 철없는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4일 전주완산경찰에 일용직 근로자 정모(36)씨와 정씨가 군대에서 만난 유모(34)씨는 지난달 18일 밤 11시30분께 김모(여·35)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800만원과 귀금속 10여점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정씨는 2년 전부터 김씨가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인연을 맺고 최근까지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는데, 정씨는 경찰에서 "최근 사소한 일로도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이 많아져 홧김에 김씨 집을 털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융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후 20억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010-3605-5000